



보도 일시	2022. 11. 30.(수) 11:00	배포 일시	2022. 11. 30.(수) 09:00
담당 부서	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	책임자	과장 윤영귀 (044-215-5930)
		담당자	연구원 강민지 (hikmj@korea.kr)

이달의 협동조합 -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

-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의료·돌봄 융합기관 지향 -

-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부터 이달의 협동조합을 선정하고 이를 사회관계망(SNS)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, 유사 기관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지원하고 있다.
- 이번 11월에는 지역주민이 협동하여 의료·돌봄 통합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의료 분야의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소개한다.

※ **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**(이하 의료사협)은 조합원의 출자를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협동조합으로, **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예방 중심의 보건·의료체제 개선, 지역의 보건·의료 수요** 등에 대응함. 지역주민과 조합원, 의료인이 협동해 **적정진료를 제공**하고,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**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 보내기(Aging in place)**를 지향함. 2022년 11월 기준 총 35개의 의료사협이 있음

- **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**(이하 살림의료사협)은 조합원이 만들고 운영하기에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다양한 전문가를 연계한 통합돌봄으로 **안심할 수 있는 돌봄 사업**을 구현하고 있다.
- 살림의료사협은 ‘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한다’라는 소신을 바탕으로 **살림의원, 살림치과, 살림한의원, 살림재택의료센터** 등의 **의료기관***을 운영하고 있다. 하루 150명, 연간 약 3만 명이 이용(살림의원 기준)하며, 연 8백 건의 건강 약자 무료진료 등도 제공 중이다.

* **살림의원은 가정의학·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인이 건강검진, 초음파, 예방접종, 만성질환, 임상 심리검사, 금연 클리닉 등 진료. 살림치과는 보철·구강내·통합치의학과 전문의 3인이 충치·잇몸치료, 보철, 틀니, 임플란트, 구강검진 등 진료. 살림**

한의원은 한의사 2인이 근골격계 통증관리, 교통사고 후유증, 체질 개선, 신경·부인계 질환 등 진료

- 특히, 지역주민과 함께 만든 ‘일차의료 주치의 제도’는 살림의료사협의 특화 프로그램이다. 2011년에 주치의 상담 제도를 도입했고, 2016년에는 가정의학과와 치과의 협진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실현을 위해 공간을 통합했다.

- 또한, 살림재택의료센터를 통해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담 의사와 방문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 팀이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왕진을 통해 월 300건의 방문·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.

○ 살림의료사협은 의료기관 운영 외에 살림데이케어센터, 서로돌봄카페 등 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. 데이케어센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해 어르신 대상(내방 요양 17명, 방문 요양 14명)으로 주·야간 시간에 걸쳐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.

- 이를 위해서 의료사협의 ①가정의학과, 치과, 한의원과 연계하여 매일 의료진이 방문하고, ②서비스 대상의 몸 상태와 욕구에 따른 소규모 맞춤형 인지·정서 활동을 제공하며, ③재활치료가 매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진행 및 ④균형 있는 식단으로 조리한 영양 식단 등을 제공하고 있다.

□ 살림의료사협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(‘12년)된 이후인 2014년에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의료사협으로 전환했으며, 3,881명의 조합원이 25.7억 원의 출자금을 모아 의료·돌봄을 위한 안정적인 조합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. 33.5억 원의 총수익 중 당기순이익은 0.95억 원(‘21년)이다.

○ 살림의료사협에 근무하는 직원은 의사 10명을 포함 총 63명으로 이중 직원조합원은 33명이며, 의료 인력(진료·간호직원 18명 포함) 28명 중 14명이 조합원이다.

□ 나아가, 살림의료사협은 조합원이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서의 활동도 활발하다.

○ 특히, 2020년 9월 대의원총회에서 건물 자산화 안전 의결 후, 총 소요 비용 35억 원 중 조합원 출자캠페인으로 12억 원을 확보해 건물을 매입, 안정적인 공간에서 의료·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.

○ 이 외에도 건강모임(취미·지역·운동·자원 활동 모임 등), 건강교육(자기 결정 교육,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 등), 자원 활동(예방접종 후원 활동, 왕진 동행 등)을 통해 조합원이 함께 건강 자치력을 높이고 있으며,

- 총회와 대의원회,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 등 자치 모임을 통한 민주적 운영으로 협동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주인 의식도 배양하고 있다.

□ 살림의료사협은 “건강하게 살다, 아플 때 좋은 돌봄을 받고, 병들고 장애가 생겨도 존엄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답게 사는 안심하고 나이 들고 싶은 마을을 만든다.”라는 조합원의 필요와 바람을 바탕으로, 앞으로도 조합원이 만들고 운영하기에 믿을 수 있는 돌봄 의료기관의 소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.



[정기총회] 사회적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



[살림재택의료센터] 거동이 불편한 환자 대상 왕진



[건강모임] 여성 노인 근력강화운동 '흰머리 휘날리며'



[서로돌봄카페] 인지증 당사자, 돌봄자, 시니어 이용자 간 '서로+함께' 돌봄

참고

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개요

조합명	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	이사장	강정혜
인가일	2014. 09. 25.	소재지	서울특별시 은평구
조합원 수	3,881명('22. 10. 기준)	조합원 구성	소비자 3,848명, 직원 33명
출자금	약 25.7억 원('22. 10. 기준)	매출액	약 33.5억 원('21. 결산 기준)
주요 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2011년) 비영리민간단체 '건강마을살림이' 설립 ○ (2012년) 살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, 살림의원(가정의학과) 개원 ○ (2013년) 사회적기업 인증(제2013-187호), 운동센터 다짐 개관 ○ (2014년)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총회 및 설립 인가 (보건복지부) ○ (2016년) 살림치과 개원 ○ (2020년) 10원칙 선포 및 <안심하고 나이들 수 있는 마을을 위한 출자캠페인> 진행(12억 달성), 살림재가복지센터 개소 ○ (2021년) 살림재택의료센터 개소(거동 불편 환자 왕진 및 방문간호), 살림케어비앤비 개소(병원과 집의 중간집), 살림데이케어 센터 개소(주·야간 보호 및 방문 요양), 살림한의원 개원 ○ (2022년) 사회적경제 유공자 정부포상(대통령 표창) 수상 		
협동조합 소개	<p>○ 평등, 평화, 민주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의료기관 운영으로 보건·의료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협동하는 사람, 건강한 삶,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</p>		
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주민과 조합원 예방 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합원 초음파 및 예방 접종비 지원 등 2,849회 - 만성질환 지역주민 진료 및 정기교육 진행 1,385회 - 치과 진료 시 구강 내 잇솔질 무료 교육 등 1,021회 ○ 인권진료: 외상환자, 휠체어 이용환자, HIV 감염인 치료, 트랜스젠더 호르몬치료 등 14,685회 ○ 왕진 및 방문간호: 외상환자, 장애인 가정, 그룹홈 등 방문형 의료 3,187회 ○ 건강 약자 무료진료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폭력피해 여성, 장애인, 학교 밖 청소년, 이주여성 등 진료 지원 836회 - 장기요양등급 외 데이케어센터 무료 이용 지원 181일 ○ 돌봄 자원 활동: 왕진 동행, 서로돌봄카페, 관절 가동 운동 등 자원 활동 225.5시간 		